

■ '법조비리 대책' 어떤 내용 담았나

'비리 법관' 변호사 개업 못한다

전국 고등법원별로 법관윤리위 설치키로 대책안 이미 언급된 내용 많아 실효성 의문

대법원이 16일 내놓은 법조비리 근절 대책에는 법관 행동준칙 제정, 감찰 강화,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윤리심사위 설치 등 강도높은 개혁 방안들이 포함돼 있다.

법원행정처가 16일 발표한 대책은 크게 △법관 윤리강령 구체화 및 감찰 강화 △법관 징계제도 및 운영 개선 △외부인사 참여 위원회에 법관윤리 및 징계·감찰 심사가 가능 △사법행정처 부처를 위한 개혁 추진 △법관 임용 및 연임심사 강화 △법관 윤리교육 강화 등을 뼈대로 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과거 몇 차례의 대형 법조비리 때 법원이 내놓았던 대책에 비해 한층 구체적이며 외부의 개혁 요구를 적극 수용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감찰의 경우 법관 행위유형별 행동준칙을 만들고 법원 감찰 조직을 강화해 사전예방적 감찰을 강화하며 전국 고등법원별로 법관윤리위를 설치키로 한 점, '비리 법관' 징계를 강화해 비리 법관의 의원직을 제한하고 중대한 비위사실이 적발되면 재판업무에서 배제키로 한 점 등이 과거보다 구체화된 점이다.

법관 감찰 및 윤리심사를 담당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기 보다는 기존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를 재편해 9명의 위원 중 5명의 위원을 외부 인사로 위촉키로 한 것도 이미 한계에 다다른 '내부 개혁'을 고집하지 않고 '외부 수혈'을 통해 분위기를 쇠신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의정부 법조비리(1998년), 대전 법조비리(1999년) 등 과거 대형 '법조비리' 사건이 터졌을 때도 대법원이 수회 관사들을 대거 징계하고 판사윤리강령을 개정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지만 별로 나아

진 게 없다는 점을 들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대책안의 대부분은 이미 사법제도발전위원회(1993년)를 비롯해 사법개혁추진위원회(1999년), 사법개혁위원회(2003년)를 거쳐 지난해 발표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2005년)에 이르기까지 각종 '사법개혁' 위원회나 대법원의 개혁안 마련 과정에서 몇 번씩 논의됐던 내용들이라는 게 이유다.

실제로 대전 법조비리 이후 대법원이 개정한 판사윤리강령의 경우 품위 유지·공정성 및 청렴성 등을 법관이 갖춰야 할 덕목으로 명시했지만 추상적 내용 일색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다.

외부인사가 참여한 법관감찰기구 설치나 징계위원회 구성원 다양화 논의도 지난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법조비리 상시감시 대책이라며 내놓은 '중안법조윤리위원회' 설치 방안이 언급된 내용이다.

결국 현재의 법조비리는 전혀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 관료화된 법원이 외부의 개혁 요구에 소극적·수동적으로 대응한 나머지 고착화된 병폐가 끊어지지 않은 채를 이룬 근거로 한 처방이 나와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나 대책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법조비리를 적절하게든 의지가 관건이라는 얘기다.

법원이 틀날 때마다 사법개혁을 외쳤지만 사건 브로커, 관선번호, 전관예우 등 진정 개혁해야 할 비리는 근절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조비리의 '기본 요소'들을 뿌리뽑지 않고서는 사법개혁은 요원하다는 냉정한 현실 인식과 함께 철저한 시행 의지가 뒤따라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연합뉴스



이영훈 대법원장이 16일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법조비리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한 뒤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대통령 밟고선 정권재창출 어렵다"

염동연의원 밝혀

"노무현 대통령을 밟고 가서는 차기 정권재창출은 물 건너 간다." 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자 열린우리당 내부에서 통행과로 알려진 염동연 의원(광주 서갑)은 16일 정계계편은 피할 수 없으나 노무현 대통령을 밟고 가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염동연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와 만나 "현 상황에서는 열린우리당으로도, 민주당으로도 통합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계계편은 해쳐 모여 식으로 제3지대에 모이는 방식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염 의원은 "최근 남의 밟을 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다"며 당 지지율 하락 배경으로 청와대를 지목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내의 일부 의원들을 겨냥한 뒤 "노무현 대통령을 밟고 가

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는 현재의 열린우리당 상황은 지난 대선 당시 대통령 아들들과 측근들의 비리로 지지율이 급락했던 민주당 상황과 비슷하다고 전제된 염 의원은 "당시 참모진들이 모두 DJ를 밟고 가야 한다고 했으나 내가 반대했으면 노 대통령도 '민주당의 모든 자산을 승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 결국 대선 승리를 일궈냈다"며 "당시 노 대통령이 DJ를 밟고 갔더라면 호남 표심의 이탈로 대선 승리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 보도연맹원 사건 진상규명

진실화해위에 '5·18 주남마을 총격' 포함 총 68건 신청

11월까지 접수 계속

한국전쟁 당시 보도연맹원 사건(광주형무소 수감자 희생사건)과 광주교도소 장기수 전향공작 사건, 5·18 주남마을 총격사건 등 광주지역의 대표적인 집단희생사건과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진상규명작업이 실시된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가 16일 광주지역 진상규명 신청사건에 대한 광주서명부(17일)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광주지역 접수는 집단희생 39건을 비롯해 인권침해 및 학살사건 13건,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 사건 12건, 항일독립운동 사건 2건, 기타 2건 등 모두 68건이다.

이중 대표적인 집단희생사건은 보도연맹원 사건으로 2건이 접수됐으며, 인권침해사건으로는 광주교도소 장기수 전향공작사건과 5·18 주남마을 총격사건 등이 접수

됐다. 광주 보도연맹원 사건은 1950년 6월25일 이후 광주도 전국 다른 지역과 같이 보도연맹원에 대한 근교 경찰의 연행이 있었으며, 이들은 광주형무소와 광주 외곽 지역에서 집단으로 희생됐다는 내용이다.

당시 광주형무소에는 광복 이후 1946년 추수폭동과 화순 탄광 노동자들의 봉기사건, 여순사건 관련 자 등이 수감돼 있다가 대부분이 총살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 재 위원회에 10건이 접수돼 있다.

또 다른 보도연맹원 사건은 1950년 10월 3일 국군의 광주 수복이 이뤄지고 이후 국군이 광주에 주둔하는 과정에서 광주 북구 운암동과 문화동지역, 광산구 일명 암밭골, 동구 지원동 지역에서 수백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게 신청자들의 주장이지만 위원회에 접수된 것은 2건이다.

인권침해 사건으로는 1965년부터 전국 각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장기수에 대한 정권 차원의 전향

공작단이 공작을 하던 과정에서 수감자들이 희생된 사건으로 신청인들은 광주교도소에서 13명 정도가 사망했다며 진상규명을 요청했다.

이 외에 5·18 당시 주남마을 총격 사건과 5·18 관련 고문치사 사건 1건, 광주 무등생생원 실종 의문사건 1건 등이 조사될 예정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접수사건을 토대로 사전조사를 이미 시작했으며, 올 11월까지 진상규명 대상 신청사건을 계속 접수한다.

현재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은 모두 4467건으로 지역별로는 전남도가 1195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송기인 위원장을 비롯한 김갑배 상임위원, 이영일 기획관 등은 17일 오전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광주시청에서 브리핑룸에서 유족과 시민 등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지역 진상규명 신청사건들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낙하산 감사' 연봉 1억2,600만원

강원랜드 2억2,200만원 최고 기관장 연봉보다 많은 경우도

임용 당시 '낙하산 인사' 논란을 일으켰던 공공기관 감사들의 지난해 평균 연봉이 1억2천600만원에 달한다고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이 16일 주장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박 의원은 16일 기획예산처가 국회에 제출한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의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용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보은,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었던 정지권 출신 공공기관 감사 46명의 지난해 평균 연봉이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기관별로는 강원랜드가 2억2천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한국토지공사(1억9천800만원), 한국지역난방공사(1억9천700만원), 한국서부발전(1억8천500만원), 한국중부발전(1억7천900만원) 등의 순서였다.

특히 한국농촌공사(1억7천700만원)를 비롯해, 한국관광공사(1억5천700만원), 한국도로공사(1억2천600만원) 등 3개 기관 감사의 경우 소속기관장 연봉보다 각각 300만원, 2천300만원, 4천100만원 많은 연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이런 현상은 지적됐다"고 주장했다.

/최진민기자 man21@

"횡령도 유전무죄 무전유죄"

77만원 쓴 중국집 배달원 징역 수백억 '꿀꺽' 대기업 CEO 징역

횡령을 저지른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소규모 자영업체 종업원들의 법적 처벌 수위를 비교할 경우 CEO들의 횡령액이 더 높음에도 실형을 사는 비율은 낮다고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16일 주장했다.

노 의원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서울중앙지법 판례를 분석한 결과, 소규모 자영업체 종업원 34명의 평균 횡령액은 636만원이고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44.1%(15명)에 달한 반면, CEO 83명의 평균 횡령액은 46억원이고, 실형 선고자는 33.7%(28명)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중국집 배달원 정도는 음식값 77만원을 생활비로 써 징역 10개월을 받은 반면 공적 자금 수천억원이 투입된 '현대전자'에서 각각 227억원과 146억원을 횡령한 두명의 전 대표이사는 기업 관행 등을 이유로 징역유예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최진민기자 man21@

지붕·옥상슬라브 우레탄폼 방수전문!

지붕 방수도 되고 단열도 되는 최첨단 신소재 **겨울철 보온, 난방비 절감! 지금 시공하십시오!!**

- 비가 세서 걱정하십니까?
- 겨울에 더워서 짜증 납니까?
- 겨울에 춥습니까?
- 외관상 흉하십니까?
- 소음이 심하십니까?

한번 시공으로 건물 수명을 높이고 영구적 보온난방비 50% 절감 효과

■ 외장 : 기와지붕, 스테이트지붕, 합석지붕, 스텐드 지붕, 아파트 옥상, 공장지붕, 농협창고 등
■ 내장 : 온실, 계사, 냉동창고, 저온창고, 체육관 건물, 치유농업 내 인테리어 가능

대리점 및 취급점 모집

(주)태양주택개발 | TEL (062) 262-0606 / 262-0450

노동부지정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현대직업전문학교
[최고 교수진, 일한 교육, 최상의 시설]

유료과목	교육내용	개강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실기	엑셀, 엑세스, 파워포인트	1차 8월 10일 : 오전/오후/09:00~12:00 2차 8월 22일 : 오전/오후/09:00~12:00
재직자과정	교육내용	개강
공인중개사	민법, 부동산학 개론 1차 중점반	7월22일 주말반
주택관리사	회계, 실무, 법규	8월 5일 주말반
정보화기초-1	윈도우, 인터넷, 문서편집활용	8월개강
정보화기초-2	엑셀, 파워포인트, 컴퓨터활용	8월개강
사무자동화	문서편집활용, 엑셀, 파워포인트, 컴퓨터활용	상당후결정

■ 기타사항
 • 고용보험가입 직장인, 각 과정별 25명 (선착순 정원제 모집)
 • 수료 후 100~80% 환급
 • 수강절차
 훈련 상담 ▶ 훈련수강신청서작성 ▶ 훈련기관에 제출 ▶ 수강

■ 문의처
 • 도청외선번호 : 1, 2, 5, 8, 9, 15, 19, 20, 22, 34, 55, 111, 117, 222, 555, 385, 777
 • 전화고교알 : 3, 11, 27, 38, 55, 111, 118
 • 메일의가이드 : 2, 6, 11, 25, 28, 30, 118, 222, 518, 666

공무원 전문강좌 수시접수중

- 첫진도 시작반(이론반) 8월 1일 (광주유일 B반) **개강**
- 문제풀이 8월 1일(서울직 선편위 대비) **매월**
- 경찰직 이벤트 무료교재(138000), 10월 1일 시험대비 문제풀이 무료 **1일**

무등고시학원 동부경찰서 222-4560

꼭내영고시학원

"교원임용 강좌에도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초등교사, 중등교사, 보전교사, 유치원교사, 전문상담교사, 평생교육사 원용시험을 구분하고 다양한 학습목표의 학습목표를 제시하면 우선 다양하고 집중한 합격리플과 그것을 실재할 수 있는 시스템 및 학생부등 개인 여건이 갖추어져 있고, 비로 우의 최고 강사진이 전공과목별로 담당하여 합니다. 2년제 교육학의 교수진은 학부, 이공계 구성원 것이 아니라 수년간 수많은 합격자들을 배출한 높은 합격률로 입증된 최고 강사진입니다. 그러므로, 합격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꼭지, 교원임용시험은 교수진이 최고여야 돼"

문제풀이반 개강 9월 2일 (현재 예약접수중)

- 교육학/학내영 선생
- 수학/임대성 교수
- 생물/김지숙 교수
- 체육내용학/김용호 교수
- 유아교육과정/임미선 선생
- 국어/최병해 교수
- 과학교육론/정영민 교수
- 지구과학/박성준 교수
- 체육교육론/조남용 교수
- 초등교육과정/위재권 선생
- 국어/교육론/미운용 교수
- 물리/정영민 교수
- 사회교육론/김형수 교수
- 미술/김성희 교수
- 영어/송옥 교수
- 화학/이영철 교수
- 일반사회/김형수 교수
- 음악/박성선 교수

전국 최강의 강사진만을 모았습니다.

수강문의 : 062-529-0090 전남대 정문앞(신안사거리) http://www.naeyoung.com

현대직업전문학교

위치 : 전남여고건1년 (김재규경찰학원 내)
☎ 224-4560, 236-2467

hanbitgosi.co.kr

'10월 1일 서울시' '9월 23일 9급사무직' '9월24일 선편위' 시험대비

7급 문제풀이반/이론반 9월 1일 마당밖

▶ **문제풀이반** ▶ **이론반** ▶ **9월 1일** ▶ **마당밖**

▶ **문제풀이반** ▶ **이론반** ▶ **9월 1일** ▶ **마당밖**

▶ **문제풀이반** ▶ **이론반** ▶ **9월 1일** ▶ **마당밖**

한빛공무원학원
북구청 건너편 전남대 후문앞 ☎ 234-0234